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관세 철폐 연기 광주 기아차 미국 공략 차질 수만대 수출효과 사라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타결로 관세 철폐시한이 연장됨에 따라 글로벌공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는 당초 기대했던 수만대의 차량 수출 효과가 사라지게 됐다. <관련기사 3·8면>
5일 외교통상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한미 FTA 추가협상을 통해 한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많은 양보를 한 반면 양돈·제약·비차 분야에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가협상에서는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미국이 물리는 관세 2.5%를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난 2007년 체결된 FTA 협정문에서는 3000cc 이하 한국산 승용차는 FTA 발효 즉시, 3000cc 초과 승용차는 3년 이내에 2.5%의 관세를 철폐기로 했었다. 추가 협상에서는 또 자동차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규정을 신설했다.
반면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에 매기는 25%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일정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

가·특허 연계 의무의 이행을 3년간 유예했다. 이번 추가협상 타결로 한미 FTA는 늦어도 2012년께 발효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시장 공략에 고삐를 죄고 있는 기아차는 이번 협상으로 관세 철폐가 늦어지는 바람에 글로벌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대부분 수출 차종이 3000cc 미만이어서 체결 즉시 관세 철폐 효과가 기대됐지만 4년으로 연장되면서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이다.
기아차에 따르면 수출선적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72만3000대를 수출했다. 이 중 25%인 18만대가 미국 시장으로 진출했다. 특히 광주공장의 전략 차종인 쏘울과 스포티지R은 올해 1월부터 각각 6만6500대와 1만6400대가 수출돼 미국 수출량의 37%와 9%를 차지하고 있다. 이 지난해 한해동안 미국 시장에 진출한 쏘울 4만6100대와 스포티지 1만2500대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결과적으로 연 10만대씩 4년간 40만대에 대한 관세철폐로 기대됐던 2500억원대의 직접효과가 사라진 것은 물

론 가격인하에 따른 수출경쟁력마저 당분간 확보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미수출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배기량 3000cc 미만차의 경우 대당 300~400달러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돼 소형차에 감점을 보이는 토요타와 혼다 등 일본차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며 “하지만 관세 철폐가 연장되면서 수십만대의 수출 효과가 사라지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농도인 전남도 역시 이번 추가협상 결과 양돈 분야에서 다소 이익을 챙겼다는 점 이외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태세다. 전남도는 이번 추가 협상을 통해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철폐 시기가 애초 2014년에는 2016년으로 2년 연장, 농업 경쟁력 확보에 다소간의 시간을 확보했다는 데 안도하면서도, FTA 발효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품목별·분야별 대응대책을 구체화한다는 복안이다.
/박정욱·김지을 기자 jwpark@



8일 개막 키스 해링展 '관심' 피아트 슈퍼스타 키스 해링전(오는 8일~2011년 2월27일)의 개막을 앞두고 5일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앞 잔디밭에 설치된 키스 해링의 작품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관련기사 12면> /N명주기자 mjna@kwangju.co.kr

“北 추가도발 땀 즉각 응징”

김관진 국방장관 취임

김관진 신임 국방장관은 지난 4일 “북한이 또다시 우리의 영토와 국민을 대상으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온다면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대응으로 그들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취임식에서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결코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며 이 같이 강조하고 “우리는 지금 6·25 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지난 3월26일 발생한 천안함 사태와 11월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은 우리 군의 자존심과 명예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으며 군을 믿고 사랑했던 많은 국민들에게도 큰 실망을 안겨드

렸다”고 말했다. 그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부모님 적의 기습도발이었음을 감안해도 분명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도 새로운 양상의 도발을 확실히 할 것”이라며 “그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의 대가가 얼마나 치열한지를 뼈저리게 느끼도록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군이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로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 ▲무형전력의 극대화 ▲국방운영 및 작전수행체계의 효율성 제고 ▲선진화된 전력체계 발전 ▲새로운 차원의 한미동맹 발전 등을 제시했다. /연광뉴스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정시 모집 12월 17일~22일
[개교 원서접수] 12월 17일~22일
[보육교사교육원] 12월 1일~1월7일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담과대학

광주일보 신춘문예 공모

단편소설·시·동화... 12월15일 마감

광주일보사가 한국 문단의 새 주역이 될 참신하고 역량 있는 신인작가 발굴을 위해 '광주일보 신춘문예' 작품을 공모합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는 광주일보 창간 이듬해인 1953년부터 전통과 권위의 등용문이 돼왔으며 배출된 작가들은 한국문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치열한 문화정신이 살아있는 작가 지망생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부문 및 상금
-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8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300만원)
- 시 : 3~5편(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동화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접수마감 : 2010년 12월15일(15일자 소인 유효)
- 보내실곳 : 우편번호 501-711 광주시 동구 급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편집국 문화생활부(전화 : 062-220-0680)
- 기타
- 팩스나 이메일 원고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원고 접수 시 연락처가 가능한 전화번호·주소·e메일 주소·인물사진을 함께 보내주시고.
- 응모작품은 발표된 적이 없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중복투고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다른 곳에 중복 입선된 원고나 기성 작품의 표절일 경우 당선이 취소됩니다.
- 당선작은 2011년 1월1일자 광주일보 지면에 발표합니다.

아이웨이웨이, 광주 못 온 까닭은 노벨평화상 대리 참석 오해 중국 당국이 출국금지 조치

중국의 유명 건축가로서, 광주시가 추진하는 어번폴리(Urban Folly-도시 조형건축물)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하려던 아이웨이웨이(53)가 '노벨평화상 시상식 대리 참석' 오해를 받아 중국당국으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3일 오전 광주에서 열린 '어번폴리 프로젝트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2일 오후 북경공항을 찾은 아이웨이웨이는 출국금지된 사실을 확인한 뒤 귀가해 승효상 201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공동

감독에게 이메일을 통해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사오보를 대신해(자신이) 시상식에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했다"며 "이번 행사는 아이웨이웨이를 제외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승효상(58) 감독은 5일 "아이웨이웨이가 이메일을 통해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사오보를 대신해(자신이) 시상식에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했다"며 "이번 행사는 아이웨이웨이를 제외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meov 환경부 광주광역시
폐의약품 분리수거,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아름다운 습관입니다.

무심코 버린 **폐의약품**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먹다남은 약은 동네약국으로 가져오세요!!



약국에 모인 폐의약품은 안전하게 소각 처리됩니다.
쓰레기통이나 하수구에 무심코 버린 약은 환경을 오염시켜 우리 몸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방치된 의약품은 약국으로 가져 오시면 수거해 안전하게 폐기합니다.

